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이제 광주를 놔 달라

는 봉사정신을 발휘했다. 혈액이 없어 사경을 헤매는 부상당한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헌혈에 나서는 희생정신도 이어졌다.

지역 현안 뒷전인 정치권

4·29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광주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경향으로서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에는 자유가 요체였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인권이 시대정신이었다.

인사는 도를 넘어섰고, 예산 확대는 이미 굳어진 지 오래다. 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전현직 장관급 33명 중 호남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더 이상 선택 강요는 안돼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만 해도 여전히 정부에 촉구하는 수준이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광주’를 의식해 기념곡 지정을 요청했던 게 전부다.

의 대형 국책사업에도 당이 녹장 대응으로 일관해 국가 지원 5년이라는 ‘출작’에 만족해야 했다. 그도 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박재하, 박주선 의원 등이 아니었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는 불투명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 지역적 차별과 확대는 한마디로 오는 게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 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 후보로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그 나름의 이유를 제시했지만 야권 재편이 아닌 야권 분열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진보세력 역시 광주정신을 이념으로 재단하거나 아전인수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그 정신은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 곧 이타(利他)에 있지 이념의 산물도 아니다.

이제 광주를 놔 달라. 그리고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5·18 묘역을 수십 차례 찾았을 텐데, 천정배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

은편칼럼



류 동 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베트남문화원을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만들자

피’였다. 베트남 커피는 향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나 커피를 좋아하는 필자는 밥그릇에 가득 담아 한사발을 먹었다. 마치 탕약을 먹는 마음으로 양손 가득 담은 베트남 커피 한사발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베트남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를 낳아주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한자문화권이고 효를 중요시 하며 근면 성실하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분단의 아픔을 공유했으며, 베트남 전쟁 한국군 참전으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른 많은 외국 나라들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문화원은 베트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들과 사회단체, 문화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베트남에 여파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베트남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광주를 방문하면 반드시 아시아문화전당에 들를 것이다. 이때 전당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베트남 국가가 걸린 베트남 문화원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동은 대단히 클 것이며 그 감동은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과 상호 이익 증대에 순풍을 달게 할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을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버리는 아픔, 변화의 두려움

변화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자발성과 버리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월은 새로 전입한 교사나 신규 교사들에게는 유난히 힘든 달이다.

업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생생의 전통을 견뎌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도전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이고 그 자신감을 새롭게 도전할 방법을 알았을 때 더욱 견고해 진다.

를 뜻한다. 쉽다 존중되고 여유가 허락되는 학교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9시 등교의 근본 취지외도 부합한다. 학생들은 쉽의 의미도 쉬는 방법도 모른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 잘못된 방식으로 쉬려고 한다.



문 종 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곳곳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요란하다. 할미꽃 윙윙하는 소리, 자갈밭에서는 벚꽃이 달래와 자리다툼에 한창이고, 뱃나무는 꽃망울을 잉태하느라 부산하다.

수업 방식을 바꾸어 하는 당위성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의하고 있다. 듣고 얻은 답(把柄)이 훨씬 효과적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니 만치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의 율가미에 묶여 내내 승수가 힘들 것이다.

경험과 습관을 바꾸고 버릴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교사들이 취할 바람직한 덕목일뿐더러,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은 책임 있는 교사의 도리라 생각한다. 학기 초 산적한 일들로 힘들겠지만 쉽을 무시한 교육은 학대와 다름없음을 성찰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

社 說

수돗물 만성적자 시민들에 떠넘겨서야

광주시가 오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7.5%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5.2%, 2017년 3.9% 등 단계적으로 3년간 총 16.6%를 올린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광주 이달부터 ‘보육대란’ 우려 크다니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이달부터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설 개선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광주의 총 상수도관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1160km로 전체의 31.1%(전국 평균 26.6%)에 달한다.

은편칼럼

수요에 따른 교부율이 낮은 만큼 원아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않아도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3월 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광주시가 긴급 대책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無 等 鼓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리얼리웃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문학도들의 4월은 T·S 엘리엇의 ‘황무지’로부터 시작된다.

4월 단상(斷想)

이름하여 ‘찬란한 슬픔’이다. 황무지는 황폐화된 현대문명을 대자연의 순환을 통cruellest month”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어김없이 입에서 맴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